

삼성·LG ‘로봇청소기’ 기술·보안 강화… 中 저가공세 대응

삼성·LG 접근권한 설정 등 마련
직배수·사물인식 등 역량 개선

中 나르와르 드리미·에코백스
인증절차 미비, 불법접근 가능성

중국 가전 기업들이 중저가 공세로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술력과 보안을 앞세운 차세대 제품으로 대응에 나선다. 출시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양사는 2세대 로봇청소기로 시장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형 로봇청소기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5’에서 올해 안으로 신형 로봇청소기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지만 내부 일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시스템’ 이미지. /삼성전자

정 조정으로 출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은 올 1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로봇 청소기 시장점유율은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샤오미, 아이로봇이 각각 19.3%, 13.6%, 11.3%, 9.

9%, 9.3%를 기록하며 상위 5대 스마트로봇 청소기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 4개 업체는 모두 중국 기업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의 54.1%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플랫폼·보안 기능을 앞세워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로봇청소기에 자체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를 포함해 보안성을 강화한다. LG전자 또한 신제품에 자사 보안 솔루션인 LG실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로봇청소기 제품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중국 업체 대비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조사 대상 제품 중 중국 기업인 나르와르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편의성과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가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올인원 로봇청소기에 자사 제품 최초로 직배수 기능을 추가할 전망이다. 자동직배수 유형과 물통 유형으로 구성해 고객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 신제품 ‘히든스테이션’과 ‘오브제 스테이션’ 2종에 자체 개발한 AI 사물 인식 기술을 적용한다. AI집과 라이더·3D카메라·초음파·범퍼 등 각종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

예물을 정밀하게 인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중국 업체들은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품질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라며 “특히 중국 기업 가운데는 정부 지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기술 투자 여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이 갖기 어려운 브랜드 파워를 적극 부각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 만큼 경쟁사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국GM “대리점·네트워크 강화… 2026년 ‘확장의 해’”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
판매·협력 서비스 센터 대표 면담

“판매 대리점과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로 2026년은 ‘확장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구스타보 콜로시 영업·서비스·마케팅 총괄 부사장)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고객 만족도 확장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와 최신 기술 도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와 강장원 한국GM 대리점협의회 회장, 김용호 한국GM 협력 서비스네트워크 협의회 회장은 지난 28일 신촌 대리점에서 전략 회의를 갖고 국내 판매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서 나온 한국GM의 국내 철수설과 달리 내수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콜로시 부사장은 “전국 380여개의 협력 서비스센터가 이미 전체 고객 서비스 물량의 92%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가 지역 서비스센터보다 더 많은 고객 서비스를 제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가운데)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 및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이 지난 28일 웨보레 신촌 대리점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실제 한국GM의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는 2024년 말 기준 91%, 2025년 1~10월 기준 약 92%로 이미 지역 서비스센터보다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GM은 새로운 기술이나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 지역과 협력 서비스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한국GM은 한국능률협회컨

설팅의 KSQI 자동차 A/S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서비스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용호 회장은 “우리 네트워크의 힘은 일관성과 품질에 있다”며 “1회 방문 수리 완료율, 추천 의향 등 주요 고객만족지표는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서비스센터가 담당해왔던 지역에서도 한국GM의 높은 서비스 기준과 고객 신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첨단 기술 도입과 신차 출시로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우선 한국GM은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슈퍼크루즈’를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해 선보인다. 한국GM이 선보인 ‘슈퍼크루즈’는 국내 약 2만 3000km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잡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국내 자율주행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강장원 회장은 “전국 대리점 네트워크들은 성장을 견인하고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대리점의 숙련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사후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한국GM 차량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굳건한 파트너십이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판매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한진그룹 임직원 역량강화 세미나

한진그룹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과 한진그룹 소속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연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제한 등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스포츠라이트 어워즈 대상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5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포트 부문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전체 6개 평가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해 종합 10위에 올랐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도 ‘2025 인스파이어 어워즈 커스터머스(Customers)’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종합 16위를 기록했다.

LACP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평가대회로 전 세계 기업·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유혜은 기자

정부·조선사, LNG 화물창 국산화 속도

삼성중공업-한국재료연구원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술협력 강화

30년간 7조원을 해외에 내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사들이 실증 확대와 소재 자립에 나서고 정부가 12월 한국형 화물창 상용화 로드맵 확정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독점 탈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조선해양 소재 기술 확보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중공업이 현장 수

요 기반 기술 발굴과 실증을, KIMS가 기반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를 맡는 역할 분담 구조다.

양측은 KC-2C(삼성중공업 개발 국산 LNG 화물창) 핵심 소재를 비롯해 초극저온 소재 및 응용기술, 용융염원자로(MSR)용 소재와 제조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LNG 화물창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저장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프랑스 GTT가 설계·인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는 30여년간 해당 기술에 의존해왔다. 지난 30년간 GTT에 지급한 로열티는 7조4000억원에 달하

며, 오는 2029년까지 예정된 162척의 물량까지 고려하면 부담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산화 시도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04년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첫 국산 모델 KC-1을 개발해 2018년 실선 적용까지 이뤄졌으나 운항 중 콜드스팟(결빙)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업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성능을 개선한 KC-2 시리즈가 개발됐지만 상용화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KC-2B(HD현대중공업 개발 국산 LNG 화물창)를 LNG빙커링선 ‘블루웨일호’에, 삼성중공업은 KC-2C를 자체 실증선 ‘그린누리호’에 적용해 운항 중이다. 다만 해외 선주들의 GTT 선호가 강해 대형 LNG운반선과 해외 선주를 대상으

로 한 본격 상용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증 기반 확충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1~2024년 총 252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한 목포대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에서는 조선 3사와 한국선급, 소재·부품 기업 등이 참여해 한국형 화물창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와제’로 지정하고 2028년 실증 완료, 2030년 국산 화물창 장착 LNG선 수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12월 중 세부 로드맵을 확정된 뒤 정례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기업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